

전북교육청 예산 잔액률 '1.3%'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관행적 과다편성 지양 결과 전년보다 낮아져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의 2019 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추진계획에 따르면 전년도에 비해 예산 집행잔액이 2018년 785억원(2.1%)에서 2019년 553억원으로(1.3%) 낮아졌다.

이는 인건비, 예비비, 시설비 등 관행적 과다편성을 지양하고, 또 재정집행집중단을 연중 운영한 결과였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의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4조 1,711억 원, 세출결산액은 3

조 8,685억 원이며, 세계잉여금 3,026억 원이다.

세계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2,462억 원, 보조금잔액 4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560억 원이나 이중 200억 원은 이미 본예산에 편성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서 확인 및 재정집행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회계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

정운영에 반영하게 된다.

결산검사위원은 도의원 3명(황영석·김희수·홍성인), 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전직공무원 5명 등 총 10명이다.

검사 범위는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19회계연도에는 3회에 걸친 실질적인 예비결산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전

년도에 비해 예산의 이월률과 잔액률이 낮아졌다"며, "이번 결산검사 결과 제시된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해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가 4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 간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실시된다.

아울러 전북도와 도교육청은 결산검사위원이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5월 31일까지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해 오는 6월 개최되는 제372회 정례회에서 결산승인을 받게 된다.

/장은성기자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항근)은 지난 1년여 간의 증·개축 공사를 마치고 청사 이전을 완료했다.

고창교육지원청, 신축 청사 이전

지상 4층규모 본관동·배움나눔관동으로 증·개축 완료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항근)은 지난 1년여 간의 증·개축 공사를 마치고 청사 이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청사는 1980년에 신축해 2016년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중에 발견된 주요 구조부 결함에 따른 건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공사 중지 후 증·개축 계획을 수립, 2019년 시설공사에 착공해 지난 3월말 본관동을 우선 완공했다.

총 사업비 97억원을 들인 신축사는 부지면적 5,643㎡, 건축연면적 5,619㎡, 지상 4층 규모로 본관동과 배움나눔관동으로 건축했다.

1층에는 행정지원과, 꿈마루카페, 특수교육지원센터, 위센터, 2층에는 교육지원과, 대회의실, 건강증진실, 영어

체합학습센터, 3층에는 교육장실, 정책협업실, 정보화연수실, 발명교육센터 4층에는 시청각실, 휴게실, 식당 등의 부대 시설이 있다.

또한 청사 전면부 및 현관에 최첨단의 컬러 LED 전광판과 멀티비전을 설치해 고창교육정책의 홍보와 다양한 교육관련 정보가 신속히 제공되도록 활용 할 계획이다

이항근 교육장은 "신청사에서 보다는 교육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해 최상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며,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전북교육비전과 함께 꿈을 꾸는 위대한 고창 교육 시대를 활짝 꽃피우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초코파이로 전하는 사랑

국제학생회 전북지부 전주대 유학생에 전달

전주대학교는 2일 국제학생회(ISF: International Student Fellowship) 전북지부(이사장 나춘균)로부터 전주한옥초코파이 600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ISF 전북지부 나춘균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평소보다 경직된 생활을 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위로하기 위해 전주한옥초코파이를 나누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유학생들에게 제공된 초코파이는 사회적기업 '유·나눔마켓 러브레드'의 제품으로 다문화가정과 새터민 근로자가 제작해 사랑 나눔과 사회적경제 실천의 의미를 더했다.

류인평 국제교류원장은 "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속에서도 유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나눔의 손길을 베풀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는 2일 국제학생회(ISF: International Student Fellowship) 전북지부(이사장 나춘균)로부터 전주한옥초코파이 600개를 전달받았다.

우석대, 중국인 유학생 280명

전원 '음성'... 격리 해제

우석대학교는 중국인 유학생 280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전원 음성 판정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했다고 2일 밝혔다.

남천현 총장은 이날 자가 격리 해제된 중국인 유학생 대표단을 집무실로 초청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지난날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280명은 대학 생활관 등에서 2주일간의 격리 생활에 동참했으며, 완주군과 대학 당국의 지원 아래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다.

/뉴시스

전북교육청, 학교 원격교육 예산 지원

24억4340여만원 긴급 편성... 웹캠·마이크 등 기자재 구입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원격교육 예산 지원에 나섰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들의 학습공백을 최소화하고, 내실있는 온라인 수업을 위해 원격교육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예산은 총 24억 4,340여만 원으로 예비비를 긴급 편성,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지원된

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각급 학교에는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웹캠, 헤드셋, 마이크 등 운영물품 구입비를 교원 1인당 7만원씩 지원한다.

또 원격교육 운영 지원비는 학교 규모(10학급 이하, 11~20학급, 20학급 이상)에 따라 100만~2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장은성기자

이와 함께 원격교육 시범학교 4개교(초 1개교·중 1개교·고 2개교)에도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원격수업 관리 위원회를 통해 도내 교원에게 지원할 사항과 학생들에게 지원할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서 "학교에서는 원격수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적기에 구입·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기자

면역력 높이는 음식 배워봐요

국제한식조리학교, 고급과정 단과반 수강생 모집

국제한식조리학교(학교장 민계홍)는 '한식 고급과정' 단과반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한식 고급과정 단과반은 집밥 준비에 필요한 일상적인 반찬부터 면역력을 높이는 일품요리, 고급한식 상차림 등 다양한 조리법을 가르친다. 특히 이번 과정에는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 일본 총리 방문 당시 오찬 메뉴를 총괄했던 한식의 대가 천덕상(롯데호텔 조리과장) 셰프가 강사로 참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수업은 4월 13일부터 매주 월요일 총 12주간 진행되며,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가 신청은 오는 10일까지 국제한식조리학교(063-230-

1667)로 하면 된다.

민계홍 학교장은 "음식을 준비할 때 올바른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다"며 "한식 고급과정에서 한식에 대해 공부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한식조리학교는 정규과정, 단과과정을 운영하며 조리입문부터 한식 창업 메뉴개발까지 한식 전반에 걸친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한식을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덴마크, 중국, 베트남 등 지에서도 학교를 찾고 있다.

/장은성 기자

